이미지북 이미지북 시선

001 이종수 __ 눈 내리는 아침 공지천 길
002 김현주 __ 아름다운 통점
003 김종길 __ 책 읽는 바다

이미지북 한국정형시선

- 서연정 __ 동행
- 김영주 __ 미안하다, 달
- 김연미 __ 바다 쪽으로 피는 꽃
- 진순분 __ 바람의 뼈를 읽다
- 백순금 __ 세상의 모든 것은 배꼽이 있다
- 최영효 __ 죽고못사는
- 이경옥 __ 무의탁 못
- 최정남 __ 비상구를 찾다
- 오종문 __ 지상의 한 집에 들다
- 최양숙 __ 활짝, 피었습니다만
- 우아지 __ 달빛옥상극장
- 김차순 __ 지금은 부재중
- 이순자 __ 501호, 그 여자
- 김혜원 __ 나를 낮춰 너를 보리라
- 오종문 __ 아버지의 자전거
- 김종빈 __ 맨홀 속에 내가 산다
- 이순자 __ 춤추는 아바타
- 한미자 __ 바람이 끌고가는 섬 (근간)
- 오종문 __ 월경을, 했다 (근간)

이미지북 이미지북 동시조선

001
별이 된 별별 이야기
김용주

♣ '이미지북 동시조선'은
계속해서 출간됩니다.

책 읽는 바다, 시를 읽어주는 김종길의 시 텍스트 !

시는 개인의 서정에 밀착된 장르이기에 고도의 체험과 행복과 추구라는 주제를 더 직정적이거나 혹은 더 내밀한 방법으로 드러낸다. 김종길은 이 시집을 통해 관포항의 삶과 철학을, 시를 통한 아마추어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바다가 읽어주는 관포항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시 속에 녹여낸다. (중략)

요즘 시대가 얄팍한 명성과 인기에 급급해 웅숭깊지 못하고, 노을을 품지 못하는 바다처럼 얄팍한 잠수만으로는 바다 밑을 다 보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, 태양 빛이 깊은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중의 어둠에 삼켜질지라도 꿈꾸는 곳에 이르렀을 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생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.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고.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. 그럼에도 호모 사피엔스 김종길 시인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. 아침노을의 장엄함을, 저녁노을의 비장함을 그리고 별빛과 달빛이 관포항에 스며들 때 그 또한 그렇게 스며들리라. 그리하여 마침내 관포리의 주민이 될 것이고, 관포항 바다를 우리에게 읽어주는 시인이 되어가리라.

— 오종문_ 시인「해설」중에서

값 12000 원
ISBN 978-89-89224-60-0
03810

책 읽는 바다
이미지북 시선 003
김종길 시집
이미지북

이미지북 시선 003

책 읽는 바다

김 종 길 시 집

Poems by Kim Jouggil

이미지북

김 종 길

경남 창녕 출생
2001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
한국문인협회·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

* e-mail : boripiriri@hanmail.net
* 전화 : 010-9304-5526

* 표지 캘리그라피 : **류정 남치우_** 서예가